

광주 동구 관광정보 누리집 관리 허술...방문객 '혼란'

‘문화관광’ 지역명소 정보 등 제공 폐업·신규점포 함께...‘오류 투성이’ 주요행사 정보 미갱신, 시민 혼선 “불편 사과...오류 안내 게재할 것”

“안내 사이트를 보고 갔는데,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어 당황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라 믿고 찾아갔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가 운영하는 관광정보 안내 누리집인 ‘광주 동구 문화관광’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지만, 수년 전 폐업된 가게가 그대로 소개되고 축제 등 주요 행사 정보도 제때 갱신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11일 접속한 ‘광주 동구 문화관광’에는 무등산 국립공원부터 대인시장·남광주시장, 총장로, 동명동 카페거리와 같이 동구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상세히 소개돼 있었다.

각 장소별 운영 정보와 역사, 편의시설, 주변 식당·숙소·즐길거리 등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보물·천연기념물, 도로명 유래, 5·18 사적지에 대한 설명까지 담겨 있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두루 접할 수 있는 구조다.

광주의 원도심이자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은 동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믿을 만한 안내 페이지로 보이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드러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폐업한 가게가 여전히 등록돼 있는가 하면, 같은 장소에 폐

업한 가게와 최근 새로 입점한 가게가 동시에 소개되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업종을 불문하고, 4년 가까이 지난 정보도 많아 사실상 검증 없는 안내로 방치된 셈이다.

행사 정보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동구의 대표 축제 정보를 소개하는 ‘오늘, 동구’ 코너에는 지난 4월 종료된 광주문화유산야행 ‘돌의 기억’이나 이달 1일 끝난 ‘무등산 인문축제’ 등이 여전히 지난해 일정과 프로그램으로 소개돼 있다.

오는 10월 열릴 ‘총장라운페스타(가을 ON)’는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 최대 축제인 ‘추억의 총장축제’ 정보는 올해 기준으로 뒤섞여 있어 운영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누리집을 신뢰하고 방문 일정과

장소를 계획한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모(25)씨는 “대학 친구들과 광주 여행을 준비하던 중 웨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광주 동구 문화관광’에 접속하게 됐다”며 “소개된 식당을 찾아가더니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어 헛걸음을 하게 됐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라 믿고 갔는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광주 방문의 해’ 선포와 함께 최근 탄핵 정국,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으로 5·18사적지를 비롯한 지역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는 만큼, 누리집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모(27)씨는 “축제 정보를 찾아보려 했는데 날짜가 제각각이라 결국 다른 경로로 다시 검색해야 했다”며 “‘광주 방문

의 해’라며 곳곳에서 홍보하면서도 정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동구는 다음달 말까지 누리집의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 있으며, 당분간 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겠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선 오류 지적을 반영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말까지 누리집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규 사업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께 사과드린다. 오류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창을 즉시 띄워 혼선을 방지하고, 양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판결 청탁’ 피고인에 호통친 광주 장찬수 판사

도박장 개설 혐의 선고 재판서 “넘어가면, 세상이 이런줄 알아”

“저한테 청탁 전화한 사람과 무슨 관계입니까?”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이번 법정에서 장 부장판사는 ‘판결 청탁’을 시도한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석을 넘어 검찰 측 좌석까지 한 줄로 선 13명의 피고인은 장 부장판사의 예기치 못한 질책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고개를 떨구거나 옆 사람만 쳐다보는 등 법정은 순간 정적이 휩싸였다.

장 판사는 재판 도중 “전남 △△농협에

다니는 ○○○이 누구예요?”라며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추궁했고, 이에 피고인 A씨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판사가 발언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겠다고 밝히자 결국 A씨는 “친한 형님의 아는 사람”이라며 청탁 시도 사실을 인정했다.

장 판사는 “왜 이런 걸 묻겠느냐. 그냥 넘어가면 사람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사에게 청탁하니깐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도박장소개설 혐의 외에도 판결 청탁 시도까지 드러난 A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약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의 부정한 시도는 다른 공범들의 양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정유철 기자



무더위 도로 살수차

광주지역 낮 최고 기온이 29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광주 북구청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직원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북구는 폭염 발생 시 관내 4개 구간에 걸쳐 살수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배 기자

5·18기념재단, 전라도 비하 유튜버 기부금 거부

“혐오발언 책임 불식 위한 의도”

5·18 기념재단이 전라도 지역을 비하한 유튜버 ‘잡식공룡’의 기부금을 거부했다.

11일 5·18 기념재단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지율과 관련해 전라도 지역을 비하해 문제가 된 잡식공룡(본명 왕현수)의 사과 기부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념사업에 후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유튜버 잡식공룡이) 혐오발언의 책임을 기부활동으로 불식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부금은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재단은 “지난 9일, 문제가 되는 유튜버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이메일을 통해 ‘기부금 반환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기부금 반환을 위한 ‘기부금 반환 합의서’, 반환받을 ‘통장 사본’을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튜버 잡식공룡은 문제가 된 게시글 이후, 자신의 전라도 지역 비하 논란에 대한 사과 문구와 함께 5·18기념재단에 전달한 후원금(총 500만원) 내역서를 자신의 채널에 공개한 바 있다. 비하 논란이 커지자, 문제가 된 유튜버 채널과 인스타 등 SNS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정유철 기자

 @jnilbo
 전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농어촌수도 해남
 Agri Art Capital Haenam

마음이 지칠 때
 해남의 자연이 전하는 진짜 힐링

힐링 해남